

교사정원 토론회

교사정원 축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6월 10일(월) 17:30

전교조충북지부 대회의실

발제 이길재(충북대학교 교수)

좌장 홍성학(충북교육연대 대표)

이은주(평등교육실현충북학부모회 대표)

토론 김상열(충북공고 교사)

김성훈(충북교육발전소 사무국장)

김나연 김예린(청주교대 학생)

충북교육연대

교사정원 토론회

교사정원 축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6월 10일(월) 17:30

전교조충북지부 대회의실

| 식순 | 시작 | 주제 · 담당 | |
|------------|-------|------------------------|---|
| 개회 | 17:30 | 사회: 김영훈 (충북교육연대 정책위원장) | |
| 토론회 안 내 | 17:40 | 좌장: 홍성학 (충북교육연대 상임대표) | |
| 주제발표 | 17:50 | 주제 발표 | • 이길재 (충북대학교 교수) • 주제: 교원 정원 축소 규모 예측 (1쪽) |
| 주제토론 | 18:20 | 학부모 토론 | • 이은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상임대표) • 주제: 지속 가능한 교육에 있어 교사의 역할은 왜 중요할까? (11쪽) |
| | 18:30 | 교사·교육행정가 토론 | • 김상열 (충북공업고등학교 교사) • 주제: 교사의 수업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17쪽) |
| | 18:40 | 시민사회 토론 | • 김성훈 (충북교육발전소 사무국장) • 주제: 시도교육청은 교원 확보에 관심이 있나? (21쪽) |
| | 18:50 | 예비교사 토론 | • 김나연, 김예린 (청주교대 비대위 미디어소통부) • 주제: 미래 교사 정원 축소에 대한 전반적 분석, 교사 정원 축소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25쪽) |
| 질의 응답 | 19:00 | | |

충북교육연대 토론회

교원 정원 축소 규모 예측

이길재
(한국학교컨설팅협회장)

I. 추계 개요

II. 필요 교원 수 추산

1. 추계를 위한 현황 분석



- 학생 수 추계에 기반한 학교급별, 시·도별 필요 교원 및 신규채용 규모 추계

-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교원 규모를 추산하기 위하여 학생 수 변화 추이를 분석
- 학급당 학생 수,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 등 교육여건 변화를 분석
- 교원양성체제 변화와 교육과정 다양화 등의 변화를 토대로 분석

2

1. 추계를 위한 현황 분석



- 데이터 기반 추산 모델링

- 시도교육청 데이터,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본부의 자료와 통계청 인구 추계 데이터(통계청 특별추계, 2021.12.) 및 주민등록인구 데이터를 확보하여 교원 수급을 추산하여 모델링함
- (활용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초등·중등 학교 현황 자료(2018~2022), 통계청 만 0~5세 주민등록인구자료(2022년 연말 기준), 통계청 미래인구 추계 자료(2021. 12.)

3



I. 추계 개요

II. 필요 교원 수 추산

4

1. 추산 모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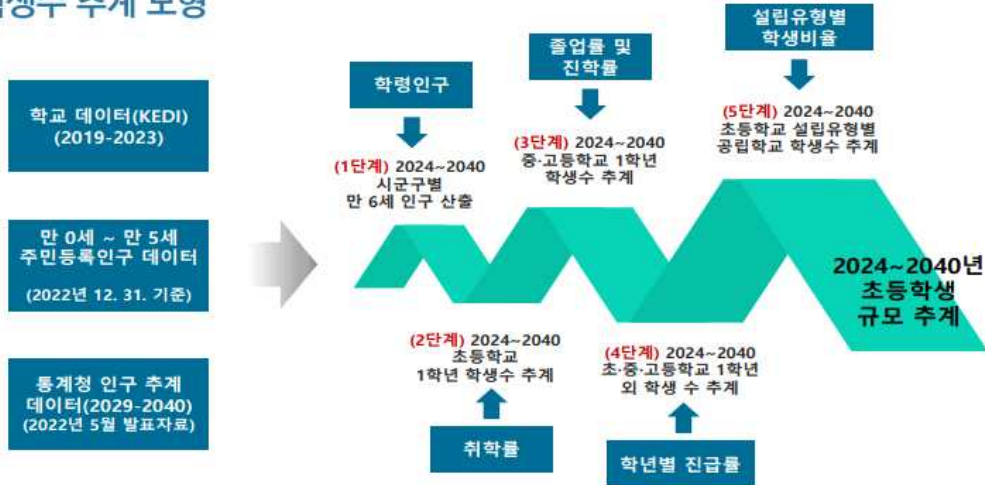


- 필요교원 추계 모델은 1) 학생수 추계, 2) 교육여건 지표(학급당 학생수) 추계, 3) 필요교원 규모 추계, 4) 신규교원 추계 순으로 구성
- 구체적으로 학생수 규모에 따른 필요 교원 규모를 산출하고,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추가 소요교원 규모를 반영하여 최종 필요 교원의 규모를 추정함
- 이때, 신규채용 교원 규모 산정을 위해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추계
- 학생수와 교육여건 지표(학급당 학생수) 추계에 근거한 교원 소요 추계에서 퇴직교원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매년 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산정함

5

2. 학생 수 추산-1

학생수 추계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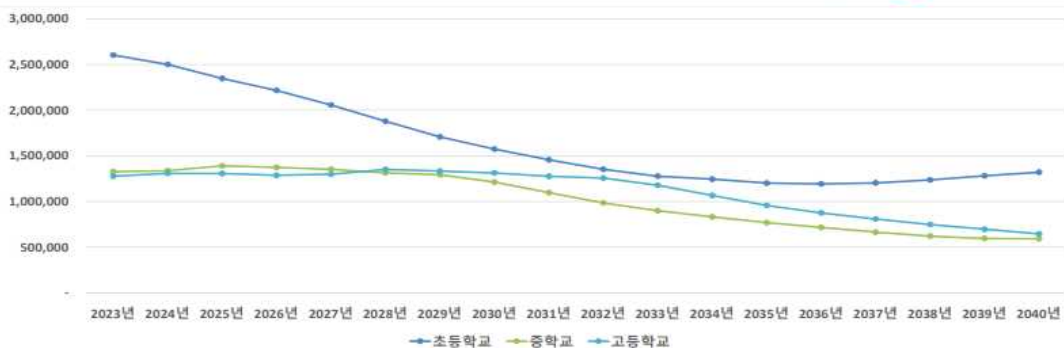


6

2. 학생 수 추산-2

학생수 추계 결과

- 초등학교는 '23년 2,603,929명에서 '36년 1,193,259명까지 약 **54.2% 감소**
- 중학교는 '23년 1,326,831명에서 '40년 592,448명까지 약 **55.3% 감소**
- 고등학교는 '23년 1,278,269명에서 '40년 646,501명까지 약 **49.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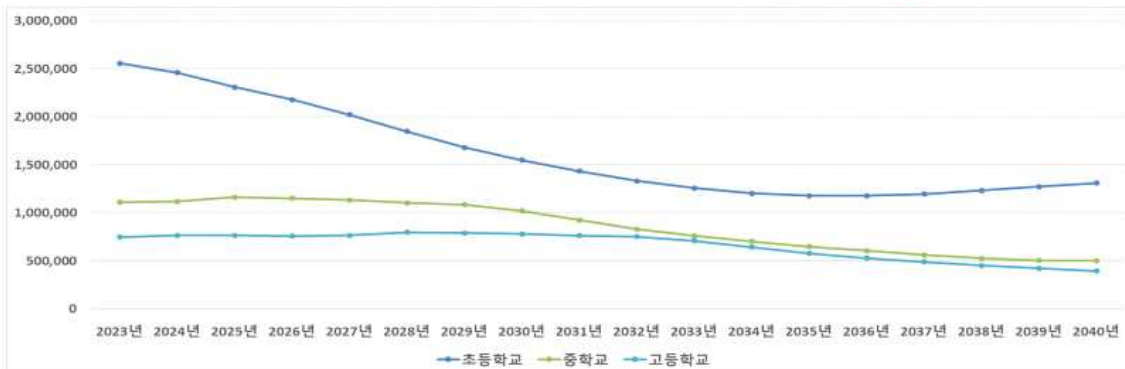


7

2. 학생 수 추산-3

▪ (신규 채용 규모 추산을 위한) 공립학교 학생수 추계 결과

- 초등학교는 '23년 2,556,520명에서 '36년 1,177,266명까지 약 54.0% 감소
- 중학교는 '23년 1,111,381명에서 '40년 501,911명까지 약 54.8% 감소
- 고등학교는 '23년 748,368명에서 '40년 394,146명까지 약 47.3% 감소



8

3. 필요 교원 수 추산-1

▪ 필요 교원 수 추계 모델(공립학교를 중심으로)

- (개요) 미래지향적 교원 필요성 대응을 위해 정책변수들을 활용한 필요 교원 규모 추산 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STEP1 | STEP2 | STEP3 | STEP4 | STEP5 | STEP6 | STEP7 | STEP8 |
|---|--|---|--|--|--|----------------------------------|--|
| 〈교과교사〉 학교급별, 학교규모 (소규모, 소규모 외) 별 학급당 학생 수 추정 | 〈교과교사〉 (step1 적용) 필요교원 규모 기본 모델 도출 | 〈교과교사〉 출발선상의 형평성* 고려 모델: 초등학교 1-2학년 학급당 학생수 12 명 적용 | 〈교과교사〉 고교학점제 모델 도입 (김도기 외, 2021) | 〈비교과교사〉 학교규모를 고려한 비교과 교사 필수 배치 모델 | 〈교과+비교과〉 다문화학생 한국어학급 담당교사 배치 필요 교원 산출 | 〈특수학교〉 특수학교 교사 소요 교원 산출 | 〈요약〉 시도별 전체 필요교원 도출: 초, 중등 각 각 7개 세부 시나리오 결과 제시 |

9

3. 필요 교원 수 추산-2

▪ 필요 교원 수 추계 모델(공립학교를 중심으로)

- STEP1) (교과교사 중심) 학교급별, 학교규모(소규모, 소규모 외)별 학급당 학생 수 추정

- 1-1. 229개 행정구역별 학교규모에 따른 학교수, 학생 수, 교원 수, 학급수 산출
- 1-2. (소규모) 최소규모(초 4.48, 중, 6.52, 고 7.96) 도달 시 학급 통합 모델
- 1-3. (소규모 외)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 이상인 행정구역은 OECD 평균수준으로 2040년까지 감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과거 변화 추이 반영
* 초등 21.1명, 중등 23.3명(OECD EAG, 2021)

- STEP2) 교과교사 필요교원 규모 기본 모델 도출

- 2-1. 'STEP 1' 에서 도출된 학급당 학생 수를 활용하여, 학급수를 도출
- 2-2. 학급수에 박현정 외(2013) 산출식을 활용*하여 필요교원 규모 도출
* 필요교원수 = (학급수 × 교육과정상 필요한 수업시간 수) ÷ 교원 1인당 주당 수업시간 수

10

3. 필요 교원 수 추산-3

▪ 필요 교원 수 추계 모델(공립학교를 중심으로)

- STEP3) (교과교사 중심) 출발선상의 형평성 고려 모델 :

3. 이길재 외(2020)에서 제시한 출발선상의 공평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프랑스 사례(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12명)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1, 2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12명까지 감소
- 3-1. 최근 5년 초등학교 1-2학년 학급당 학생 수 12명 이상인 학교 비율을 고려하여, '24년부터 20%씩 달성을 목표로 하여 '28년에 최종 완성하도록 모델링
- 3-2. 'STEP2'를 통해 도출된 필요교원 수 중 1,2학년 규모에 해당하는 1/3에 필요교원 증가분 13.99%를 적용하여 필요교원 수를 추산

- STEP4) (교과교사 중심) 고교학점제 모델 도입

- 4-1. 김도기 외(2021)에서 제시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15.33시간) 활용하여, 'STEP2'에서 도출된 필요교원 규모 기본 모델에 주당수업시수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수준으로 점진적 감소
- 4-2. 필요교원 수 중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수업학급 증가율(1.20×1.71) 및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강사활용 수업시수 증가(1.95%)를 고려하여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필요교원 규모 산출

11

3. 필요 교원 수 추산-4



▪ 필요 교원 수 추계 모델(공립학교를 중심으로)

- STEP5) 학교규모를 고려한 비교과 교사 필수 배치 모델

5-1. 행정구역별 학교규모별 학교당 학급수 추이와 추계된 학급당 학생 수를 고려하여, 연도별 학교수 추산

5-2. 시나리오별로 2040년까지 점진적으로 학교당 비교과교사 배치

5-2-1. (모델1) 비교과교사 소규모 학교 2명, 소규모 외 일반 4명 배치

5-2-2. (모델2) 비교과교사 소규모 학교 3명, 소규모 외 일반 5명 배치

- STEP6) 다문화학생 한국어학급 담당교사 배치 필요 교원 산출

6-1. 최근 5년 시도별 전체학급 대비 한국어학급 비율 평균값 및 증감율 산출

6-2. 필요교원 규모 기본 모델(절차 2) 및 비교과 교사 규모(절차 5)를 활용하여 한국어학급 운영을 위한 필요교원 규모 산출

12

3. 필요 교원 수 추산-5



▪ 필요 교원 수 추계 모델(공립학교를 중심으로)

- STEP7) 특수학교 교사 소요 교원 산출 모델

7-1. 최근 5년 시도별 전체 교원 대비 특수학교 교원 비율 산출(시도별 최근 5년 평균값 활용)

7-2. 필요교원 규모 기본 모델(절차 2) 및 비교과 교사 규모(절차 5)를 활용하여 시도별 전체 교원 대비 특수학급 교사비율을 적용하여 특수학교 필요교원 규모 산출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운영에 따른 특수교사 규모는 'STEP2' 모델에 포함하여 산출되었음을 밝힘

13

3. 필요 교원 수 추산-6

필요 교원 수 추계 모델(공립학교를 중심으로)

- STEP8) 시도별 시나리오별 필요교원 도출

| 시나리오 | 초등 | 중등 |
|------|------------------------------|----------------|
| S1 | 교과교사 기본 모델(소규모, 학급당 학생 수 도출) | |
| S1-1 | “S1”+ 비교과 모델1(일반 4/소규모 2) | |
| S1-2 | “S1”+ 비교과 모델2(일반 5/소규모 3) | |
| S2-1 | 출반선상 형평성 모델+비교과 모델 1 | 고교학점제+비교과 모델 1 |
| S2-2 | 출반선상 형평성 모델+비교과 모델 2 | 고교학점제+비교과 모델 2 |
| S3-1 | “S2-1” + 다문화학급 모델 | |
| S3-2 | “S2-2” + 다문화학급 모델 | |

14

3. 필요 교원 수 추산-7

공립학교 필요 교원 수 추계 결과 : 초등학교

- 시나리오 1은 '23년 155,993명에서 '40년 89,534명까지 약 42.6% 감소
- 시나리오 1-1은 '23년 167,752명에서 '40년 101,284명까지 약 39.6% 감소
- 시나리오 1-2는 '23년 167,752명에서 '40년 119,397명까지 약 37.7% 감소
- 시나리오 2-1은 '23년 167,752명에서 '40년 110,720명까지 약 34.0% 감소
- 시나리오 2-2는 '23년 167,752명에서 '40년 114,000명까지 약 32.0% 감소
- 시나리오 3-1은 '23년 168,218명에서 '40년 111,193명까지 약 33.9% 감소
- 시나리오 3-2는 '23년 168,218명에서 '40년 114,472명까지 약 32.0% 감소
- 시나리오 4-1은 '23년 168,218명에서 '40년 148,534명까지 약 11.7% 감소
- 시나리오 4-2는 '23년 168,218명에서 '40년 151,813명까지 약 9.8% 감소

| 구분 | S1 | S1-1 | S2-1 | S3-1 | S4-1 |
|-------------|---------|---------|---------|---------|---------|
| '23~'40년 평균 | 107,217 | 117,705 | 126,259 | 126,728 | 136,054 |

15

3. 필요 교원 수 추산-8

▪ 공립학교 필요 교원 수 추계 결과 : 중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시나리오 1은 '23년 130,423명에서 '40년 79,333명까지 약 39.2% 감소
- 시나리오 1-1은 '23년 138,692명에서 '40년 86,899명까지 약 37.3% 감소
- 시나리오 1-2는 '23년 138,692명에서 '40년 88,897명까지 약 35.9% 감소
- 시나리오 2-1은 '23년 138,692명에서 '40년 98,263명까지 약 29.2% 감소
- 시나리오 2-2는 '23년 138,692명에서 '40년 100,262명까지 약 27.7% 감소
- 시나리오 3-1은 '23년 138,930명에서 '40년 98,502명까지 약 29.1% 감소
- 시나리오 3-2는 '23년 138,930명에서 '40년 100,501명까지 약 27.7%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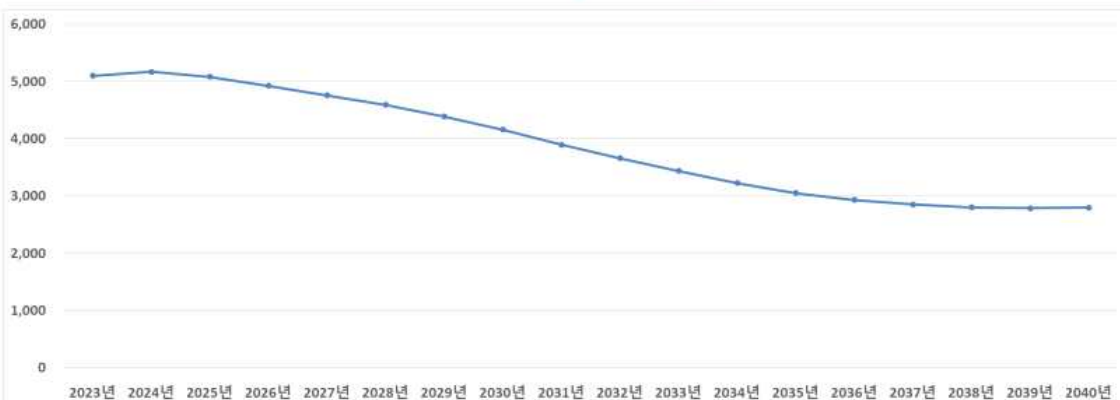
| 구분 | S1 | S1-1 | S1-2 | S2-1 | S2-2 | S3-1 | S3-2 |
|-----------------|---------|---------|---------|---------|---------|---------|---------|
| '23~'40 년 평균 | 127,264 | 136,543 | 137,955 | 150,093 | 151,505 | 150,332 | 151,743 |

16

3. 필요 교원 수 추산-9

▪ 공립학교 필요 교원 수 추계 결과 : 특수학교

- '23년 5,098명에서 '40년 2,798명까지 약 45.1% 감소



17

4. 신규 채용 교원 수 추산-1

▪ 신규채용 교원 수 추계 모델

(STEP 1) 퇴직 교원 규모 추계

- 첫째, 시도별로 '23~'40년의 정년퇴직자의 규모를 추계함. 이를 위해 '22년 교원 현황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각종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 교사만을 대상으로 추계. 이 때, 연도별 정년퇴직자 중 명예퇴직으로 중복되는 수치를 제외하여 추계에 반영
- 둘째, 시도별로 '24~'40년의 명예퇴직의 규모를 추계함. '22년 교원현황을 기준으로 연령별 명예퇴직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

(STEP 2) 신규 채용 교원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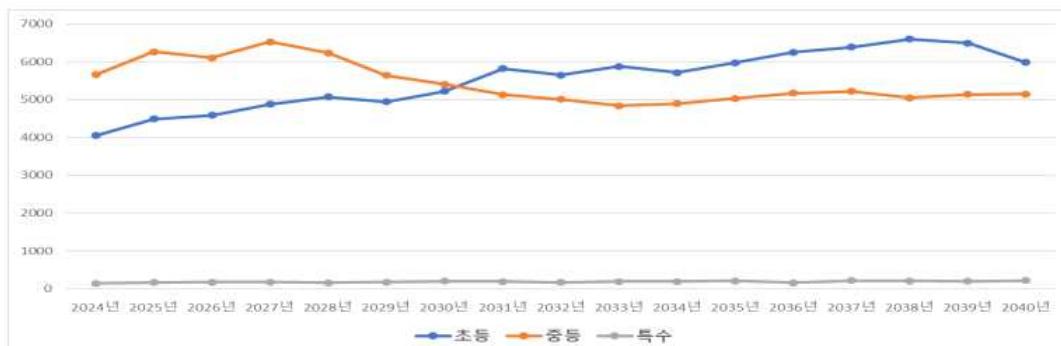
- 첫째, 연도별 학교급별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교원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2024~2040년까지 연도별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교원의 규모*를 추정
- * 예. 2025년 추가 필요 교원 규모 = 2025 필요교원 규모 - 2024 필요교원 규모
- 둘째, 2025년부터 2040년까지 학교급별 소요 교원의 적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가폭을 smooth-out 하는 방식으로 평균값을 적용하고, 이에 퇴직규모를 더하여 신규채용 규모를 추계

18

4. 신규 채용 교원 수 추산-2

▪ 퇴직자(정년, 명예) 교원 수 추계 모델

- 초등학교는 연평균 5,528명의 퇴직 교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
- 중등학교는 연평균 5,440명의 퇴직 교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
- 특수학교는 연평균 187명의 퇴직 교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



19

4. 신규 채용 교원 수 추산-3

공립학교 신규채용 교원 수 추계 결과 : '25~ '40년 연평균 신규채용 규모

| 구분 | S1 | S1-1 | S1-2 | S2-1 | S2-2 | S3-1 | S3-2 |
|----|-------|-------|-------|-------|-------|-------|-------|
| 초등 | 303 | 303 | 496 | 858 | 1,051 | 858 | 1,051 |
| 중등 | 1,464 | 1,422 | 1,540 | 2,091 | 2,208 | 2,091 | 2,209 |
| 특수 | 54 | | | | | | |



20

질의 응답

감사합니다.

지속 가능한 교육에 있어 교사의 역할은 왜 중요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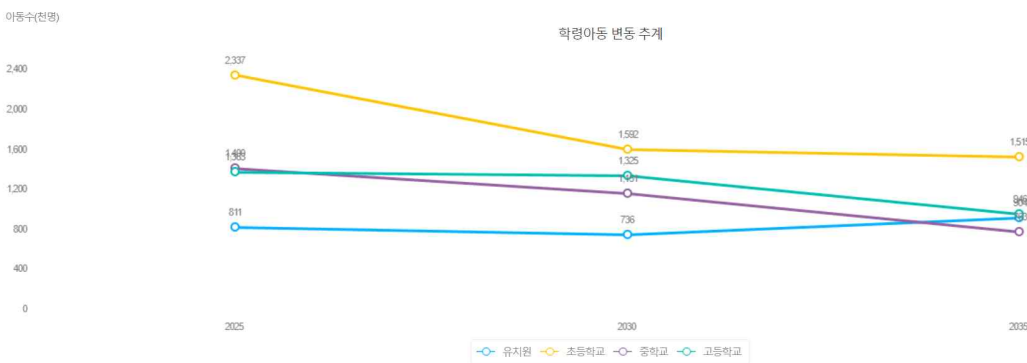
이은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상임대표)

□ 들어가며

학령인구 감소는 사회적인 문제가 분명하며,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2021년, 코로나19 교육 회복과 교육여건 개선 요구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관련 부처는 사실상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교원 정원감축 일변도의 대책은 우려스러운 면이 많다. 적정 교사 정원 확보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필수 요건이기에 학부모들에게도 관심사이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경제 논리를 우선시하는 교원 정원 감축은 교육공공성과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 교사 정원을 줄여가며 공교육 정상화, 교육여건 개선은 불가능하다. 우리 교육의 지속성, 안정성과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교육 주체들과 지역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뜻을 모아 나갈 사안이다.

□ 현황

• 학령인구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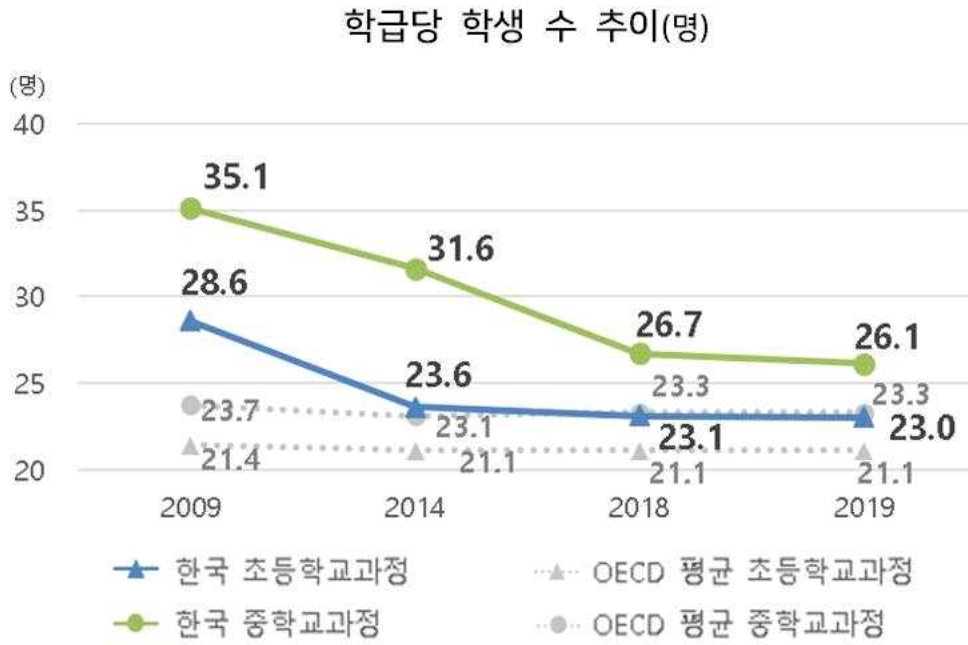
[그림 28] 학령아동 변동 추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35년까지 유.초.중.고 학령인구는 큰 폭 감소 예상
- '20년 : 6,735천명 → '35년 : 4,128천명
- 유치원 학령인구(3-5세)는 2020년 126만명, 2035년 90만명으로 2020년 대비 약 28.1% 감소 예정
-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는 2020년 272만명, 2035년 152만명으로 2020년 대비 약 44.4% 감소 예정
- 중학교 학령인구(12-14세)는 2020년 136만명, 2035년 76만명으로 2020년 대비 약 44.1% 감소 예정
- 고등학교 학령인구(15-17세)는 2020년 139만명, 2035년 95만명으로 2020년 대비 약 31.9% 감소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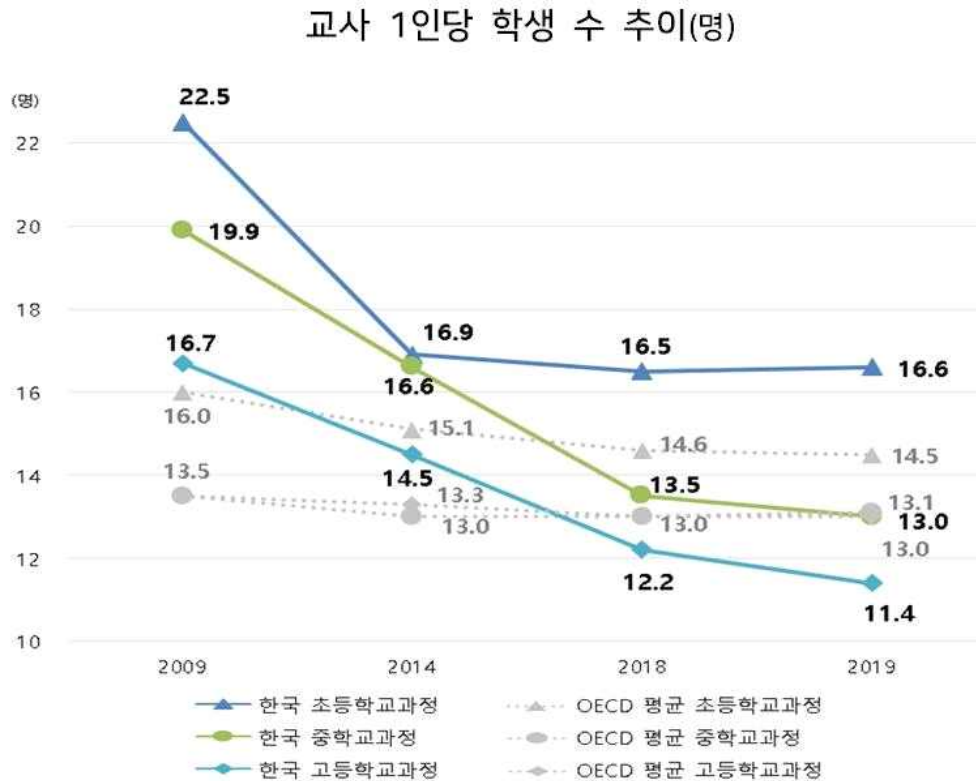
* 유의사항

- 학령아동 추계는 추계인구 자료로, 인구변동요인인 출생, 사망, 국제이동율이 변동하면 장래인구는 달라질 수 있음
- 학생수 추계는 학령인구에 진학률과 탈락률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교육법에 정의된 단순 연령에 따라 분류한 학령인구와는 다름.

• 현재 학급당 학생수 현황



[그림 29] 학급당 학생 수 추이(2019기준)



[그림 30] 교사 1인당 학생 수 추이(2019 기준)

2019년 현재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현황에 관한 정보 제공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OECD 평균에 비해 약 2.1명 많은 16.6명이며, 중학교는 OECD 평균과 유사한 13.0명, 고등학교 과정은 OECD 평균보다 약 1.6명이 적은 11.4명으로 나타났다.[그림1] 한편,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 각각 OECD 평균보다 약 1.9명 많은 23명, 2.8명 많은 26.1명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과정의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2]

□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 수급 계획 발표**

-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 미래교육 수요를 교원수급과 직접 연계
- 지역 간 교육격차(농산어촌 등 소규모 초등학교, 인구유입지역 과밀학급) 반영
- 초등 1~2학년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원 확보로 국가교육책임 강화
-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여 초·중·고 정보교과 교원 대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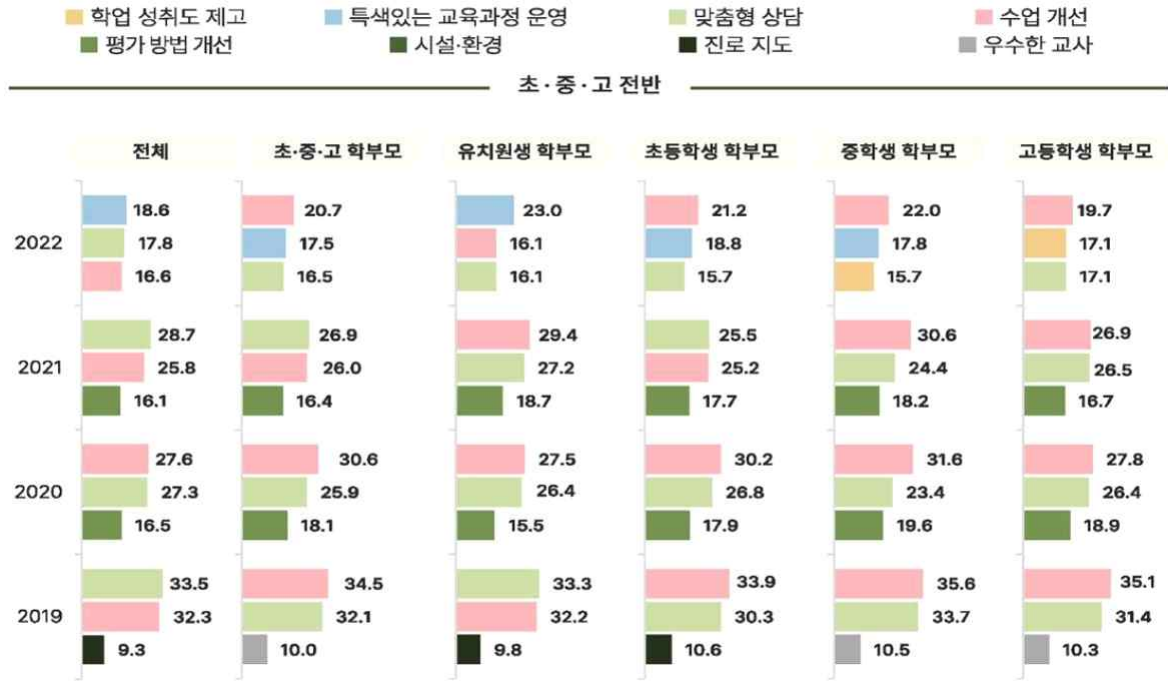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와 기초학력 보장 필요**

2021년 12월 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코로나19(COVID-19) 시기 중학교 수학 학습격차 실태 점검 보고서’에 의하면 중학교 2~3학년 학생의 경우 학년 상승에 따른 수학 성적의 표준편차 차이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커져 성적 표준편차가 클수록 학습격차도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고등학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이 학력 저하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다. 기초학력 뿐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서도 교사 정원확보는 필수적이다.

□ **학생별 맞춤형 교육**

학교의 형태·규모 상이. 농산어촌등의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학교 운영에 대한 교원배치 필요. 또한 학급당 학생 수로 산출시 과밀학급이 많은 학교는 교원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움. △원활한 흐름의 교원 수급 필요.△고교학점제 교원 수급 필요.

□ 학부모가 공교육에 기대하는 점¹⁾



[그림 31] 학교가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전국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2년 결과로 국민의 인식과 학부모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전국 성인남녀 응답자의 결과를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 전반적으로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18.6%,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인성, 안전 등) 활동 17.8%,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 16.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전반적으로는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 20.7%,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17.5%,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인성, 안전 등) 활동 16.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학부모 기대 항목을 보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요구

• 소규모 학급 규모 입법화

- 학교 통폐합과 폐교가 충북과 전국에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지역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져 인구소멸을 가속화 시킨다. 일방적인 교원 감축은 과밀학급, 교과 시수 증가, 전공하지 않은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및 순회 교사 증가, 유아 혼합학급 등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소규모학교 유지를 위한 교원 필수정원제 도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중장기 교사 수급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협의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1) 권순형외 (202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2). 연구보고서, vii

- ‘정원의 기간제 교사’ 제도화는 중단

-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정원의 기간제 교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땀질식 처방의 전형으로 비정규직 교원을 양산하는 ‘정원의 기간제 교사’ 제도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제도화 시 교육과정 및 공교육 전반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할 것이다.

-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학생 수가 감소했지만 교사의 업무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학생 수 평균은 줄어도, 학급과 학교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현재 교사 배치는 학급 수, 정원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이뤄져 교사 정원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교사의 수업과 업무가 줄어드는 것은 고사하고 늘고 있다. 교원 수 산정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닌 학급수로 바꿔야 한다. 그동안 주장해왔던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법제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교원의 수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일이다.

□ 마무리

- 통계자료의 수치들은 주요한 지표지만, 학령인구 감소만을 생각하며 성급하게 접근한다면 근시안적인 대안에 그칠 것이며 공교육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생 수 감소를 교육의 질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여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선생님들이 수업 변화를 주도하고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지만 발표 내용을 보면 현장의 목소리는 축소되거나 빠져있는 부분이 많아 이주호 장관의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좋은 교육과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경제적 논리보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앞으로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전에 현재 학교의 교사 수가 적절하게 배치되었거나 충분했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장의 요구는 배제되고 경제적 논리만으로 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교육환경과 교육의 공공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한국의 대표적 교육문제로는 △치열한 입시경쟁 △창의력 비판적 사고능력부족 △교육 불평등에 둘러싸여 있다. 적정교사의 수급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학부모로 바라는 점은 △교육의 질향상. △안정성, 지속가능한 교육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우리 아이들이 평등한 교육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1인분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사의 수업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김상열 (충북공업고등학교 교사)

1. 들어가는 말

해방 이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70~80년대 고도 성장기를 거쳐 오늘날 세계 10위~15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좁은 국토와 빈약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교육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취학하기 시작한 60~70년대에는 교실이 부족하여 콩나물 교실과 2부제 수업이 진행되었고, 부족한 교사를 채우기 위해 양성소, 사범학교, 2년제 교육대학 등을 통해 교사를 배출하였고, 중등의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 전국의 국립대학교에 사범대학이 설치되고, 4년제 교육대학이 완성되면서 대규모의 초중등 교원 양성체계가 현재의 모습을 갖추어졌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초중고 학생수가 1,000만명이 넘어 정점에 이르렀고, 학교 수와 학급수도 또한 크게 늘어났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2024년 현재 초중고 학생 수는 500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저출생으로 인해 학생 수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원 수 감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2. 최근 3년간(2022~24) 교사수/학생수/학교수/학급수 변화 추이

가. 교사수

가-1. 전국

| 구분 | 2022년(A) | 2023년 | 2024년(B) | 증감(B-A) | 증감비율 |
|----|----------|---------|----------|---------|-------|
| 초 | 197,846 | 196,244 | 191,066 | -6,780 | 96.6% |
| 중 | 119,643 | 118,239 | 114,853 | -4,790 | 96.0% |
| 고 | 136,330 | 135,311 | 129,972 | -6,358 | 95.3% |
| 합계 | 453,819 | 449,794 | 435,891 | -17,928 | 96.0% |

가-2. 충북

| 구분 | 2022년(A) | 2023년 | 2024년(B) | 증감(B-A) | 증감비율 |
|----|----------|--------|----------|---------|--------|
| 초 | 6,901 | 6,837 | 6,913 | 12 | 100.2% |
| 중 | 4,278 | 4,135 | 4,138 | -140 | 96.7% |
| 고 | 4,232 | 4,083 | 4,005 | -227 | 94.6% |
| 합계 | 15,411 | 15,055 | 15,056 | -355 | 97.7% |

나. 학생수

나-1. 전국

| 구분 | 2022년(A) | 2023년 | 2024년(B) | 증감(B-A) | 증감비율 |
|----|-----------|-----------|-----------|----------|--------|
| 초 | 2,662,616 | 2,601,870 | 2,425,556 | -237,060 | 91.1% |
| 중 | 1,347,349 | 1,325,239 | 1,294,524 | -52,825 | 96.1% |
| 고 | 1,259,222 | 1,274,633 | 1,263,229 | 4,007 | 100.3% |
| 합계 | 5,269,187 | 5,201,742 | 4,983,309 | -285,878 | 94.6% |

나-2. 충북

| 구분 | 2022년(A) | 2023년 | 2024년(B) | 증감(B-A) | 증감비율 |
|----|----------|---------|----------|---------|--------|
| 초 | 83,823 | 81,674 | 78,177 | -5,646 | 93.3% |
| 중 | 42,599 | 42,010 | 42,362 | -237 | 99.4% |
| 고 | 39,063 | 39,150 | 39,549 | 486 | 101.2% |
| 합계 | 165,485 | 162,834 | 160,088 | -5,397 | 96.7% |

다. 학교수

다-1. 전국

| 구분 | 2022년(A) | 2023년 | 2024년(B) | 증감(B-A) | 증감비율 |
|----|----------|--------|----------|---------|-------|
| 초 | 6,356 | 6,323 | 5,967 | -389 | 93.9% |
| 중 | 3,276 | 3,277 | 3,134 | -142 | 95.7% |
| 고 | 2,375 | 2,378 | 2,274 | -101 | 95.7% |
| 합계 | 12,007 | 11,978 | 11,375 | -632 | 94.7% |

다-2. 충북

| 구분 | 2022년(A) | 2023년 | 2024년(B) | 증감(B-A) | 증감비율 |
|----|----------|-------|----------|---------|--------|
| 초 | 268 | 267 | 267 | -1 | 99.6% |
| 중 | 128 | 128 | 128 | - | 100.0% |
| 고 | 82 | 82 | 82 | - | 100.0% |
| 합계 | 478 | 477 | 477 | -1 | 99.8% |

라. 학급수

라-1. 전국

| 구분 | 2022년(A) | 2023년 | 2024년(B) | 증감(B-A) | 증감비율 |
|----|----------|---------|----------|---------|-------|
| 초 | 120,136 | 118,961 | 113,640 | -6,496 | 94.6% |
| 중 | 51,270 | 51,074 | 49,775 | -1,495 | 97.1% |
| 고 | 53,814 | 53,774 | 52,057 | -1,757 | 96.7% |
| 합계 | 225,220 | 223,809 | 215,472 | -9,748 | 95.7% |

라-2. 충북

| 구분 | 2022년(A) | 2023년 | 2024년(B) | 증감(B-A) | 증감비율 |
|----|----------|-------|----------|---------|--------|
| 초 | 4,118 | 4,021 | 4,003 | -115 | 97.2% |
| 중 | 1,715 | 1,694 | 1,711 | -4 | 99.8% |
| 고 | 1,633 | 1,629 | 1,633 | - | 100.0% |
| 합계 | 7,466 | 7,344 | 7,347 | -119 | 98.4% |

주) 1. 국립,공립,사립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계임

2. 2022.4월, 2023.4월과 2024.4월 월별 NEIS EDS 기본통계를 비교한 자료임

3. 교육부의 중장기(2024~27년) 교원수급계획(2023.04.23. 발표)

가. 학생수 변동 추이(2023~2038년)

| 구분 | | 2023년 | 2027년 | 2030년 | 2033년 | 2038년 |
|----|--------------|-------|-------|-------|-------|-------|
| 초등 | 공립 학생수(천명) | 2,539 | 1,976 | 1,551 | 1,418 | 1,664 |
| | 2023년 대비 증감률 | | △ 22% | △ 39% | △ 44% | △ 34% |
| 중등 | 공립 학생수(천명) | 1,857 | 1,841 | 1,683 | 1,351 | 997 |
| | 2023년 대비 증감률 | | △ 1% | △ 9% | △ 27% | △ 46% |

나. 2024~2027년 공립 교원 신규채용 규모(안)

| 구분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 초등 | 학생수(천명) | 2,539 | 2,423 | 2,268 | 2,131 | 1,976 |
| | 신규채용 교원수 | 3,561 | 3,200~2,900명 내외 | | 2,900~2,600명 내외 | |
| | 교사 1인당 학생수 | 15.4 | 14.8 | 13.9 | 13.2 | 12.4 |
| | 학급당 학생수 | 21.1 | 20.0 | 18.6 | 17.3 | 15.9 |
| 중등 | 학생수(천명) | 1,857 | 1,880 | 1,908 | 1,868 | 1,841 |
| | 신규채용 교원수 | 4,898 | 4,500~4,000명 내외 | | 4,000~3,500명 내외 | |
| | 교사 1인당 학생수 | 11.8 | 12.1 | 12.4 | 12.3 | 12.3 |
| | 학급당 학생수 | 25.0 | 25.2 | 25.5 | 24.8 | 24.4 |

4. 2024년도 초등교원 양성과정 정기승인 계획(2024.04.11. 발표)

가. 연도별 초등교원 양성기관* 입학정원 및 모집인원 추이(명)

| 구분 | 2012 | 2014 | 2016 | 2018 | 2020 | 2022 | 2023 | 2024 |
|-----------|-------|-------|-------|-------|-------|-------|-------|-------|
| 양성기관 입학정원 | 3,848 | 3,848 | 3,847 | 3,847 | 3,847 | 3,847 | 3,847 | 3,847 |
| 초등교원 모집정원 | 6,507 | 7,386 | 6,591 | 4,089 | 3,916 | 3,758 | 3,561 | 3,157 |

* 10개 교대, 한국교원대(초등교육과), 제주대(교육대학), 이화여대(초등교육과)

나. 최근 5년간 초등교원 임용경쟁률 및 합격률

| 구분 | 모집인원 (A) | 지원인원 (B) | 응시인원 (C) | 합격인원 (D) | 경쟁률 (B/A) | 합격률 (D/C%) |
|---------|----------|----------|----------|----------|-----------|------------|
| 2020학년도 | 3,916 | 7,151 | 6,610 | 3,564 | 1.8 | 53.9% |
| 2021학년도 | 3,864 | 7,584 | 7,172 | 3,643 | 2.0 | 50.8% |
| 2022학년도 | 3,758 | 7,857 | 7,338 | 3,565 | 2.1 | 48.6% |
| 2023학년도 | 3,561 | 7,550 | 7,047 | 3,362 | 2.1 | 47.7% |
| 2024학년도 | 3,157 | 7,303 | 6,838 | 2,978 | 2.3 | 43.6% |

다. 입학정원 12% 감축 시 교육대학별 입학정원 예상

| 구분 | 서울 교대 | 부산 교대 | 대구 교대 | 경인 교대 | 광주 교대 | 춘천 교대 | 청주 교대 | 공주 교대 | 전주 교대 | 진주 교대 | 제주 대 | 교원 대 | 이화 여대* | 합계 |
|------|-------|-------|-------|-------|-------|-------|-------|-------|-------|-------|------|------|--------|-------|
| 2024 | 355 | 356 | 383 | 598 | 326 | 321 | 286 | 354 | 285 | 319 | 114 | 111 | 39 | 3,847 |
| 2025 | 312 | 313 | 337 | 526 | 287 | 282 | 252 | 312 | 251 | 281 | 100 | 98 | 39 | 3,390 |

* 이화여대의 경우 모수가 적어 대학 자율 조정 추진

5. 교원 수급의 적정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발제자가 추계한 향후 학생 수 감소 규모는 2023년 기준 2040년까지 초등학교 54.2% 감소, 중학교 55.3% 감소, 고등학교 49.4% 감소를 예측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교원수 감소 규모는 시나리오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시나리오1은 42.6% 감소에서 시나리오4-2는 9.8% 감소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중학교도 시나리오1은 39.2% 감소에서 시나리오3-2는 27.7% 감소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어떤 시나리오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교원의 감소 규모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아직 교육부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만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6. 맺는말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들로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단순히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교원수를 줄여야 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우리나라의 주요 성장 동력인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

60~70년대 산업화 시대에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양성을 주목적으로 했던 학교 교육은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종합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 지는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과거에는 교과 교육을 중심으로 약간의 생활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은 교과 교육, 생활 지도, 급식, 건강 관리, 진로 교육, 인성 교육, 가정 문제 등 3~18세에 해당하는 모든 아이들의 일상을 책임지고 교육하는 기관이 학교이다.

1980년 대비 2024년 현재 학생수는 거의 50% 정도 감소했다. 그러나 교원수는 거의 두배로 증가했다. 단순 비교하면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4로 줄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급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들고, 도시에서 신설 학교가 계속 늘어 났으나, 농산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아직도 상당수 유지되고 있다. 교과 교원 중심이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비교수 교과 교원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교과 교원들의 수업 부담은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교원들의 업무는 증가하였고, 생활지도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주당 20시간 전후의 교과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들이 담임 업무, 행정 업무, 생활 지도, 학생·학부모 상담 등 유무형의 업무에 쫓겨 잠시도 여유를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최근 저출생으로 한국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한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질 높은 교육을 통해 미래를 열어갈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성장시켜야 한다. 교원의 질이 떨어지고, 업무가 과중하면 교육활동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선택이다. 특히 우수한 인재를 교원으로 양성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교육부는 단순한 통계 수치로 교원수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학교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최고의 교육에 필요한 학급당 학생수는 몇명으로 할 것인가? 질 높은 수업을 위해 교사가 담당해야 할 적절한 주당 수업시수는 몇 시간인가? 학교에 필요한 비교수 교과는 무엇이고, 이에 필요한 교원수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교사가 부담하는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해 어떤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가? 등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교원 수급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교원 확보에 관심이 있나?

-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김성훈 (충북교육발전소 사무국장)

1. 들어가며

아래 표 <교육회복 지원 기간제교원 한시적 채용 인건비>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하면 모든 시도교육청이 산정액만큼의 기간제교원 한시적 채용 인건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충북교육청도 67.8%만 사용하였습니다. 학교현장에서는 기간제교원이 필요 없었는지, 교육청이 선발하지 않은 것인지,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교부금 반영 인원보다 적게 채용한 점은 설명 필요하다. 아래 표를 보고나서 이런 의문이 든다.

‘충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교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할까?’

더 나아가 충북교육청 및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정책 가운데 교원 양성 및 임용(충원)에 어떠한 정책 방향을 가졌는지 살펴보며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합의된 교육철학과 교육여건 확충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표1. 교육회복 지원 기간제교원 한시적 채용 인건비>

(단위: 명, 만원)

| | 기간제 교원수 | 산정액 ¹⁾ | | | 2024년 감교부액 | 감교부 비율 ²⁾ |
|-----------|--------------|--------------------|------------------|--------------------|---------------------|-------------------------|
| | | 2022년 | 2023년 | 계 ²⁾ | | |
| 서울 | 803 | 355억 8361 | 71억 1672 | 427억 0033 | △279억 6285 | 65.5% |
| 부산 | 267 | 118억 3166 | 23억 6633 | 141억 9799 | △100억 7553 | 71.0% |
| 대구 | 197 | 87억 2973 | 17억 4595 | 104억 7567 | △65억 0459 | 62.1% |
| 인천 | 454 | 201억 1825 | 40억 2365 | 241억 4190 | △157억 0445 | 65.1% |
| 광주 | 84 | 37억 2232 | 7억 4446 | 44억 6678 | △36억 1179 | 80.9% |
| 대전 | 203 | 89억 9561 | 17억 9912 | 107억 9473 | △64억 8245 | 60.1% |
| 울산 | 55 | 24억 3723 | 4억 8745 | 29억 2468 | △28억 4127 | 97.1% |
| 세종 | 99 | 43억 8702 | 8억 7740 | 52억 6442 | △45억 8420 | 87.1% |
| 경기 | 2,891 | 1,281억 0985 | 256억 2197 | 1,537억 3182 | - | 0.0% |
| 강원 | 80 | 35억 4507 | 7억 0901 | 42억 5408 | △37억 9626 | 89.2% |
| 충북 | 108 | 47억 8584 | 9억 5717 | 57억 4301 | △18억 5100 | 32.2% |
| 충남 | 407 | 180억 3553 | 36억 0711 | 216억 4263 | △146억 5454 | 67.7% |
| 전북 | 223 | 98억 8187 | 19억 7638 | 118억 5825 | △118억 5825 | 100.0% |
| 전남 | 166 | 73억 5601 | 14억 7120 | 88억 2722 | △58억 8596 | 66.7% |
| 경북 | 168 | 74억 4464 | 14억 8893 | 89억 3357 | △71억 9614 | 80.6% |
| 경남 | 389 | 172억 3789 | 34억 4758 | 206억 8546 | △114억 0189 | 55.1% |
| 합계 | 6,594 | 2,922억 0212 | 584억 4042 | 3,506억 4254 | △1,344억 1115 | 38.3% |

1) 산정액 : 2022년에 10개월분, 2023년에 나머지 2개월분 반영

2) 산정액의 계, 감교부액 비율 : 산출

* 교육부 각년도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2022년 29쪽, 2023년 34쪽, 2024년 36쪽) ** 반올림

***정의당 정책자료 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63721&page=1

2. 시도교육청의 교원 양성 및 임용(충원) 정책

시도교육청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교원양성 정책은 일부 교육청에서만 제안되었는데, 대표적인 정책으로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연계강화 정책(경기), 교원양성대학 필수 강좌에 교과 독서지도 과목 신설(경남), 교육대학원 AI 융합교육 전공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교사 양성 정책(대전), 예비교사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부산), 교육실습학기제 시범 운영정책(울산)을 포함하였다. 둘째, 17개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 제시된 교원충원 정책을 살펴본 결과, 다수의 교육청이 공통적으로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에 있어 교육청 위탁 운영'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외에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강원교육청의 '신규 및 2년 미만 여성 교직원 복지 배려학교 발령 배제'정책과 전남교육청의 '지역단위 교원 임용제로 도서지역에 8년간 계속 근무하는 교사채용' 정책 등이 있다(송경오, 2023).

<표2.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원 양성 및 임용(충원)정책 현황(2011~2022)>

| 구분 | 교원 양성 및 임용(충원)정책 | | | 구분 | 교원 양성 및 임용(충원)정책 | | |
|----|------------------|--------|----|----|------------------|--------|----|
| | 양성 | 임용(충원) | 소계 | | 양성 | 임용(충원) | 소계 |
| 강원 | - | 7 | 7 | 세종 | - | 3 | 3 |
| 경기 | 2 | 6 | 8 | 울산 | 1 | 1 | 2 |
| 경남 | 2 | 3 | 5 | 인천 | - | 3 | 3 |
| 경북 | - | 4 | 4 | 전남 | - | 4 | 4 |
| 광주 | - | 5 | 5 | 전북 | - | 3 | 3 |
| 대구 | - | 4 | 4 | 제주 | - | 2 | 2 |
| 대전 | 1 | - | 1 | 충남 | - | 2 | 2 |
| 부산 | 1 | 3 | 4 | 충북 | - | 5 | 5 |
| 서울 | - | 5 | 5 | | | | |

충북교육청의 경우 신규교사 임용시험 관리 및 역량 검증 강화나 사립학교 교원위탁 채용 및 법인간 공동전형과 같은 우수 교원 확보(충원)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충북교육감 인수위 백서 1-2 교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살펴보면 예체능실기, 과학교과실기, 전문교과실기를 2024학년도까지 자체출제를 완료하나 수업실연이나 심층면접은 자체출제를 평가원으로 위탁전환을 계획하고 있어 충북교육청에 맞는 교원선발의 방향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충북교육청 2024 주요업무계획 1-6-3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에서 <품성과 수업능력을 겸비한 우수교사 선발>의 업무만 계획하고 있어 윤건영교육감의 교원양성 및 임용(충원)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원 및 제주와 같은 지역가산점 부여, 전남의 다문화가정 출신 교사 임용, 제주 IB 학교 교사 임용과 같은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한 유인책과 함께 소멸 위험지역의 학생을 교육할 교사들을 위한 아파트형 관사 제공 및 특별 수당 등의 유인책과 장기 근무 가능과 같은 인사 혜택과 더불어 지역교사제(지방직임용)와 같은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3. 현재 우리의 교육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중심으로)

2020년 10월, 학급당 학생 수 20명이라 규정 조항을 교육기본법에 신설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적절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규정하여 학급에서 교육 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원활한 생활지도를 하는데 적절한 학급당 학생 수를 법률로 정하자는 의미가 있는 개정법률안이다. 비록 21대 국회의 임기가 다 되어 자동 폐기 되었지만, 교육여건을 법률 수준으로 보장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 2021년 세종교육청을 시작으로 울산, 서울, 광주에 시행 중이고 일부 교육청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표3. 시도교육청 초1 한 반 20명 시행 현황>

| | | | | | |
|----|--------|----|-------|----|---------------|
| 서울 | 점진적 시행 | 울산 | 시행 중 | 전북 | 시행 중 부분 시행 |
| 부산 | | 세종 | 시행 중 | 전남 | |
| 대구 | | 경기 | 부분 시행 | 경북 | |
| 인천 | | 강원 | | 경남 | |
| 광주 | 시행 중 | 충북 | 추진 중 | 제주 | |
| 대전 | | 충남 | | | |

*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2023년 12월 6~15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답변 받은 사항

<표4.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

| 구분 | 유치원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
| | 교원1인당 학생수 | 학급당 학생수 | 교원1인당 학생수 | 학급당 학생수 | 교원1인당 학생수 | 학급당 학생수 | 교원1인당 학생수 | 학급당 학생수 |
| 2020 | 11.4 | 16.7 | 14.2 | 21.8 | 11.8 | 25.2 | 10.1 | 23.4 |
| 2021 | 10.9 | 16.1 | 14 | 21.5 | 11.9 | 25.4 | 9.9 | 23 |
| 2022 | 10.3 | 16.7 | 13.7 | 21.1 | 11.7 | 25 | 9.6 | 22.6 |
| 2023 | 9.4 | 16.1 | 13.3 | 20.7 | 11.6 | 24.6 | 9.8 | 22.9 |

초중고등학교 '과밀학급'은 2021년 23.2%에서 2023년 18.1%로 감소하였으나 고등학교는 2022년 18.1%에서 2023년 22.3%로 증가하였다. 특히 과학교 0%, 외고 1.7%, 국제고 2.0%이 비해 일반고 27%로 일반고의 과밀학급의 비중이 높은 문제가 있다. 2019년 OECD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으로 한국평균 초등학교 23명 중학교 26.1명으로 OECD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 공론화를 통해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합의된 교육철학과 교육여건 확충이 필요하다.

2022개정교육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는 현장 교사 네트워크와 국민참여단을 모집하여 교육과정에 현장 교사와 국민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국가교육위원회도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을 통해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과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을 받고 있다(비록 그 청원 인원이 현실 불가능하지만).

핀란드의 경우 우파정당의 포퓰리즘정책으로 스웨덴어 선택과목화에 대한 시민 발의가 2014년 의회에 제출되어 2015년 기각되었으나 교육정책을 시민 발의의 형태로 공론화과정을 거쳤다는 의미를 가진다.

우리의 상상력과 다양한 의견을 모아보았으면 좋겠다.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라는 통계에 갇혀 있지 말자. 과밀학교와 소규모학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방교사제는 가능할까? 초등학교는 1인 담임 중심의 수업이 언제까지 가능할까? OECD국가에 비해 20%대 밖에 되지 않는 특수교육대상자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 느린학습자(경계성지능아동)에 대한 지원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 가운데 누구의 책임일까? 학교운영, 교육여건의 중심에 학생과 교육과정 운영을 두고 우리의 교육여건이 향상되게 하자는 약속을 가지고 최대한의 상상력과 실현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송경오. (2023). 우리나라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정책의 정책수단 유형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41(5), 161-192,

신현석(2010). 한국의 교원정책. 서울: 학지사.

교육통계(202-)

충청북도교육청(2011~2024). 주요업무계획.

제주, 내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경쟁률 6.23대 1(22.10.26)

<https://v.daum.net/v/20221026103320190>

정의당 정책자료 학생수 감소.. '초1부터 한반 20명' 기회로 삼기를(24.01.04)

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61993&page=1&c1=%EC%A0%95%EC%B1%85%EB%B6%84%EC%84%9D

미래 교사 정원 축소에 대한 전반적 분석, 교사 정원 축소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김나연, 김예린 (청주교대 비대위 미디어소통부)

저희는 청주교육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미디어소통부장 미술교육과 23학번 김나연 미디어소통부원 음악교육과 24학번 김예린입니다. 저희 입장은 교원 정원 축소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원 정원 축소는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교원 수가 줄어든다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증가하여 교사가 학생들 개인에게 주는 관심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통계를 보면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13.3명으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14.6명, 한국 16.1명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많은 편에 속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한국의 교육통계는 재학생 수를 담임교사만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교장, 교감, 영양, 사서, 보건교사 등 수업을 하지 않는 교원을 포함하여 산출한 결과인 반면, OECD의 통계는 이들을 제외한 수업 담당 교원만은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다. 그럼에도 한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평균보다 높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 현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교육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다. 초등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학생들의 인격적 발달, 정서적 지지와 사회성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교사가 과도한 학생 수를 전담해 그 역할이 과중된다면, 학생들의 필요한 지원을 놓치기 쉽고 이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저하, 나아가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등 교사의 정확한 통계가 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무작정 그 수만큼 똑같이 필요 교원이 감소하면 된다는 생각은 오히려 교육 현장의 발달을 늦추고, 다른 국가들 보다 낮은 질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선진 우수 교육 국가로 발돋움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다른 국가들처럼 정확한 1인당 학생 수 통계를 낼 필요가 있다.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교사를 제외하고 수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교사만을 통계에 입력해 정확히 교사가 몇 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지 산출해야 한다. 정확한 통계 이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교원 감축 대응에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교원 정원이 증가해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든다면 어떨까?

교원 정원 증가는 학생들의 학습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적을수록 교사는 학생 개인에게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에 개별화된 지도가 가능해진다. 이는 학

업적 성장뿐 아닌 전인적 성장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학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교사가 살펴야 하는 범위가 비교적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교원 정원 증가를 통한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소는 교실에서의 여유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교사에게 과중된 학교의 행정업무들을 더 빠르게 해소하고, 학생의 생활 및 학업 분야에서 더 나은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수업 구상 및 학습 경험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증가시켜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교원 정원 축소는 외곽지역과 같은 농촌지역의 학교의 교사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 올 수 있다. 학습 계획서, 생활기록부 작성, 학교 행사 준비와 같은 행정업무와 수업 관련 업무 지도와 상담 등 현재 교사에게 주어지는 업무량은 현저히 많으며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그러나 외곽지역의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는 이런 업무들을 혼자서 두 세개를 맡으며 학생들의 수업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 상황이 지속되거나 더 악화된다면 교사들은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이는 아이를 가진 젊은 세대들이 농촌을 떠나고, 우수한 교사들이 교육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외곽 및 농촌지역을 젊은 세대와 아이가 없는 지역으로 만들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는 단순 교육의 질의 문제를 떠나 사회가 앓고 있는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때문에 교원의 정원 축소는 단순 수치로만 계산해야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낳을 수 있는 문제이기에 더 많은 고려를 통해 결정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단순 통계에 의한 축소 및 감축은 결코 미래를 위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교육의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수요를 다시 늘리기 위해 교육의 질을 상승시키기 위한 결정을 우리는 내려야 할 때이다.